



numbers
vol. 254

세계인과 비교한 한국인의 종교성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중 최하위권!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세대통합예배 인식
- ②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실태

2024. 9. 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중 최하위권!

한국의 종교 인구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3년 종교인 비율은 37%에 불과하지만(넘버즈 224호), 세계인 10명 중 9명(89%*)는 종교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종교는 인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인이 인식하는 종교성은 어떠한가? 종교가 없는 인간은 있지만 종교성이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성이란 인간만이 가진 영적인 속성이다.

이번 호에서는 글로벌 리서치 기관 입소스(IPSOS)에서 세계 주요 26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인의 종교의식 조사와 미국의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5개국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적 영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종교성이 세계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주목할 만한 결과를 보면,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종교의 중요성 인식 등 한국의 종교적인 성향은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명상이나 운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성향 등 종교성은 낮지 않았다.

*World Christianity 2024: Fragmentation and Unit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January 2024, 각 국가별 민속종교 포함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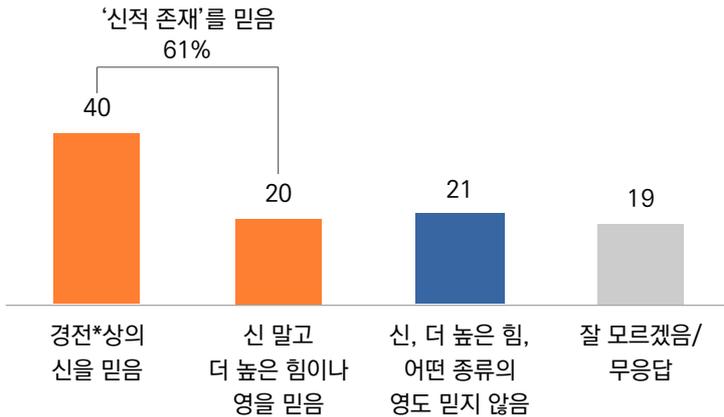
01

[세계인의 종교성]

세계 주요 26개국 성인 61%, '신적 존재' 믿어!

- 세계 26개국 성인 대상으로 '신' 또는 그보다 '더 높은 힘이나 영'에 대한 믿음을 물어본 결과, '경전*상의 신을 믿음'이 40%로 가장 많았고, '신 말고 더 높은 힘이나 영을 믿음'이 20%를 차지했다.
- 경전 상의 '신'과 '그보다 더 높은 힘이나 영', 즉 '신적 존재'를 믿는다는 비율은 모두 61%로 조사국가 성인 10명 중 6명에 해당했다.

[그림] 신 또는 더 높은 힘에 대한 믿음 (26개국 성인, %)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조사 대상국 :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미국, 아르헨티나, 벨기에,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멕시코,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스웨덴, 태국, 터키,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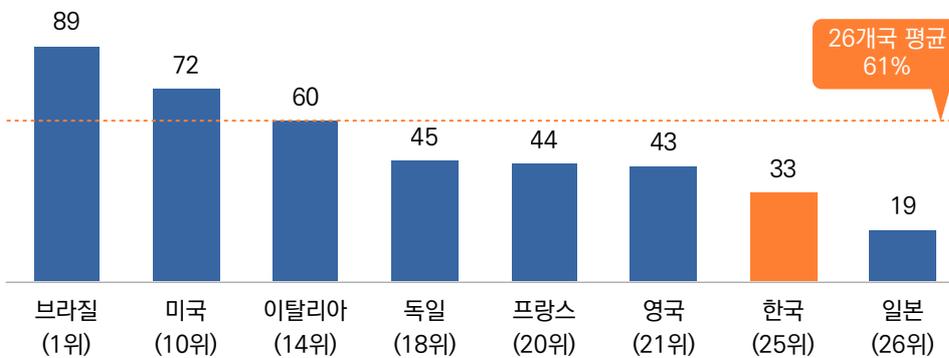
*성경, 쿠란, 토라 등

Note) 합계가 맞지 않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 26개국 중 최하위권!

- 이러한 '신적 존재'를 믿는 비율은 국가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브라질'이 8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은 72%, 유럽의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영국'은 43~45% 정도의 비율로 나타났다.
- '한국'은 3명 중 1명꼴인 33%로 26개국 평균(61%)보다 크게 낮았으며, '일본(19%)'과 함께 조사국 중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그림] 주요 국가별 '신적 존재*' 믿음 (26개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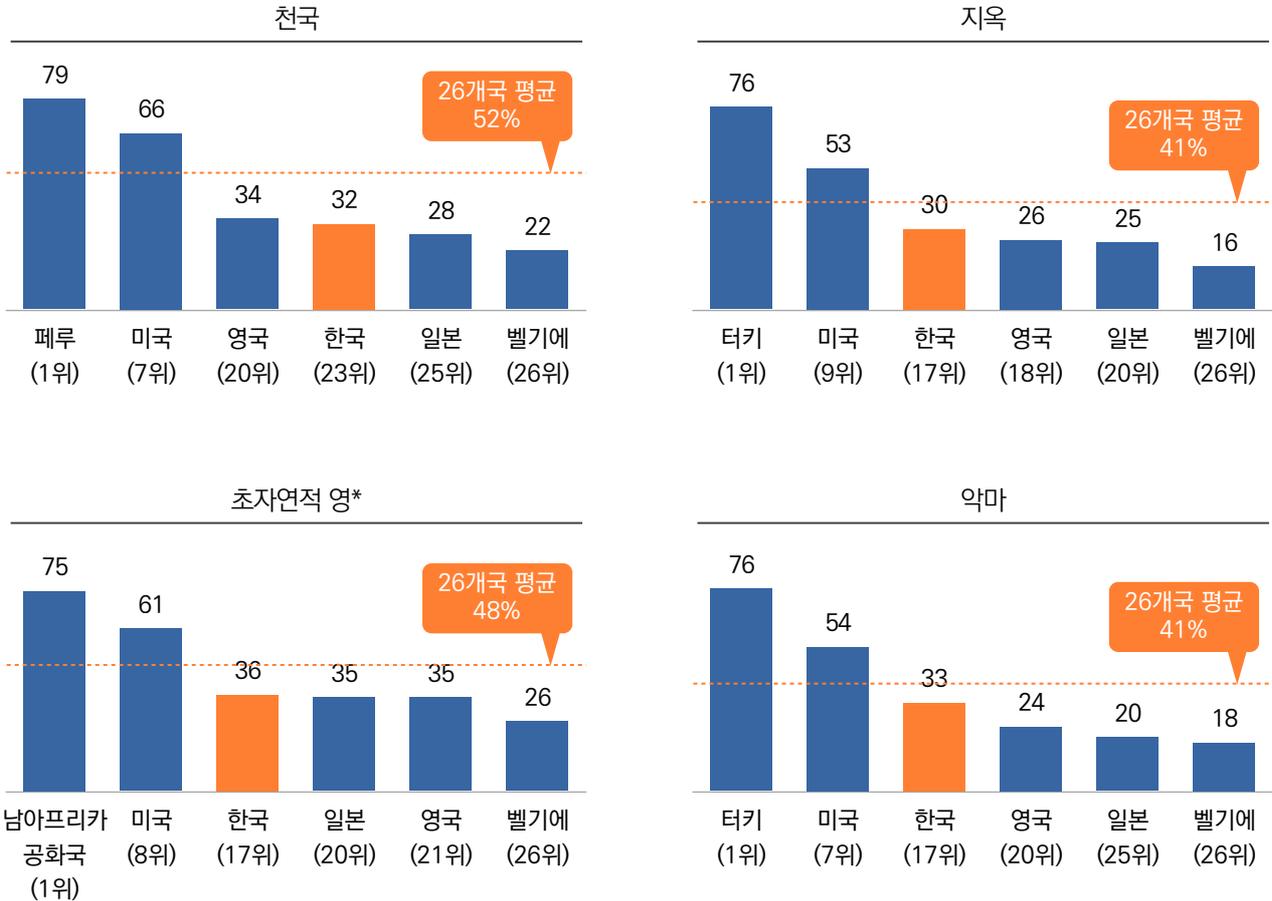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경전 상의 신을 믿음 + 신 말고 더 높은 힘이나 영을 믿음' 비율

‘천국’과 ‘지옥’ 믿는 비율,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낮아

- 이번에는 천국, 지옥, 영, 악마 등 종교적 개념을 제시한 후 이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한국인이 각 항목에 대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30%대로 26개국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 ‘한국’이 26개국 평균치와 가장 차이가 나는 항목은 ‘천국’으로 20%p 차이를 보였다.

[그림] 종교적 개념 실존 인식 (26개국 성인, %)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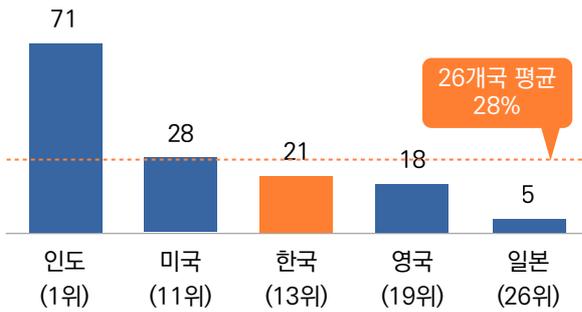
*천사, 요정, 마귀, 유령 등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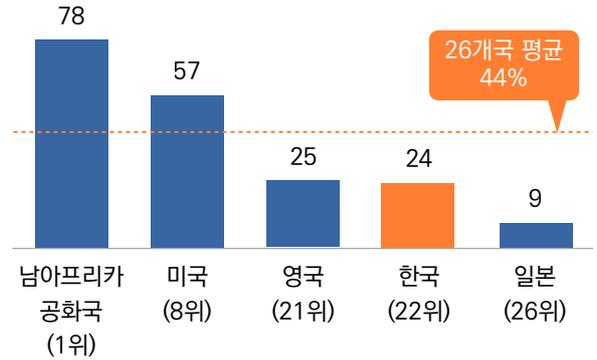
[세계인의 신앙 활동] 한국인의 신앙 활동, 26개국 중 중하위권!

- 세계인의 예배, 기도 등 신앙 활동을 비교해 보았다. 한국인이 교회, 절 등 예배 장소에 가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1%로 조사국 중 중간인 13위를 차지했으며, 예배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월 1회 이상)은 24%로 22위에 랭크됐다. 한국인의 신앙 활동 역시 26개국 중 중하위권으로 조사됐다.

[그림] 예배 장소* 가는 비율
(26개국 성인,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준, %)



[그림] 예배 장소 밖에서 기도하는 비율
(26개국 성인, 한 달에 한 번 이상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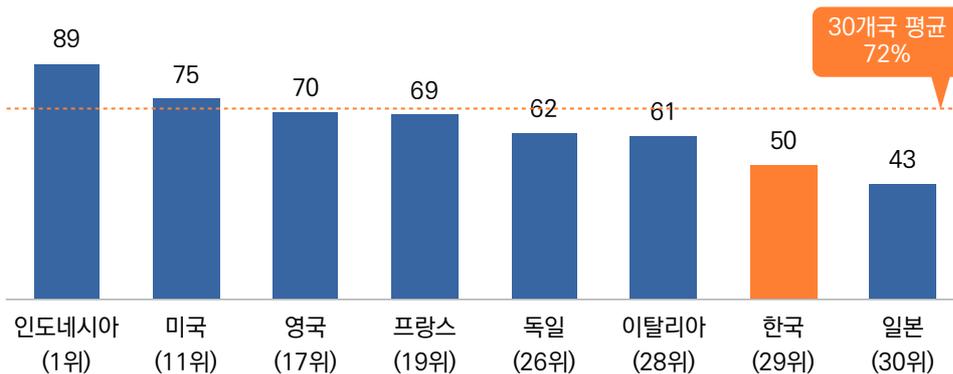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교회, 절, 모스크 등

세계인의 신앙/영적 생활 만족도 72%, 한국 50%!

- 세계인의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생활의 만족도는 어떠할까? 입소스가 발표한 다른 보고서인 '글로벌 행복 2024' 보고서의 '종교적/영적 만족도' 부분을 살펴본 결과, 조사 대상 30개국의 평균은 72%로 나타났지만, 한국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50% 수준에 머물러 조사 대상국 중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그림] 종교적 신앙이나 영적 생활 만족도 (30개국 성인, '매우+약간 만족' 비율*, %)



※출처 : Ipsos, 'Happiness Index 2024', 2024.03. (30개국 성인 24,269명, 온라인 조사, 2023.12.22.~2024.01.05.)
조사 대상국 :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독일, 영국,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한국, 스페인, 스웨덴, 미국, 브라질, 칠레, 중국,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멕시코, 페루,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태국, 터키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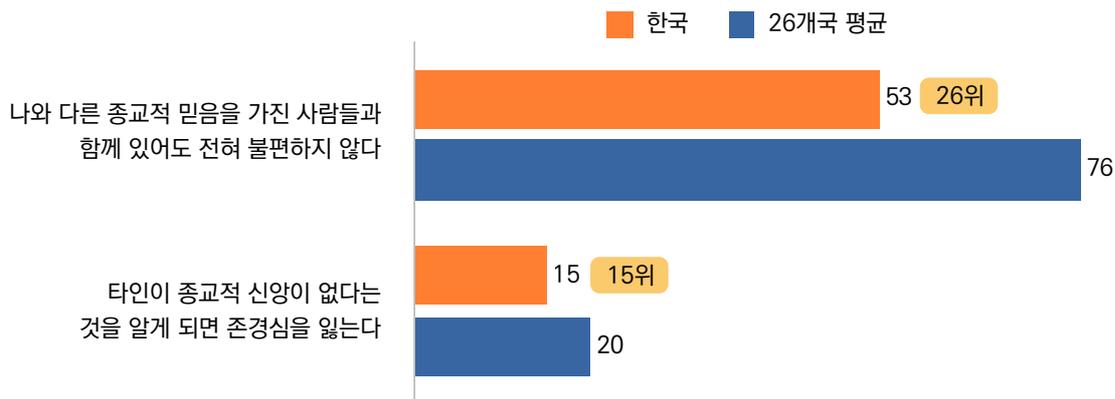
03

[세계인의 종교에 관한 인식]

‘다른종교가진사람불편하다’ 인식, 한국인이 조사국중가장높아

- 이번에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 대한 태도를 확인해 보았다. ‘나와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다’에 대해서는 한국인 53%가 동의했는데 이는 조사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바꿔 말하면 한국인은 다른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장 불편해하는 나라인 것이다.
- ‘타인이 종교적 신앙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존경심을 잃는다’에 대해서는 15%가 동의해 평균(20%)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림] 종교인에 대한 인식 (26개국 성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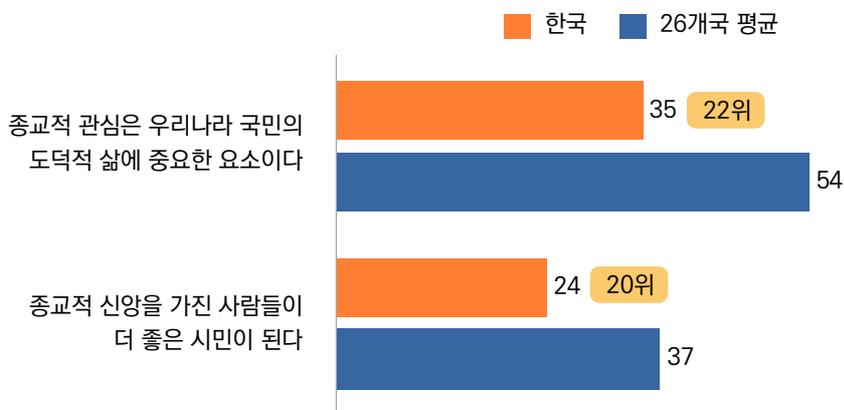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4점 척도

한국인, 종교와 삶의 연관성 낮게 인식해!

- 종교를 믿으면 더 좋은 시민이 된다는 의견과 같이 종교와 삶의 연관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한국인의 ‘종교적 관심은 우리나라 국민의 도덕적 삶에 중요한 요소이다(35%)’와 ‘종교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시민이 된다(24%)’에 대한 동의율이 각각 26개국 중 20위, 22위를 기록해 다른 나라에 비해 종교와 일상의 삶의 연관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종교의 사회적 인식 (26개국 성인, ‘매우+약간 동의’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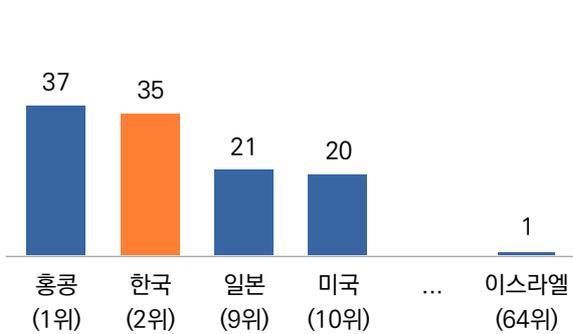
※출처 : Ipsos, ‘Global Religion 2023’, 2023.05. (26개국 성인 19,731명, 온라인 조사, 2023.01.20.~2023.02.03.)
*4점 척도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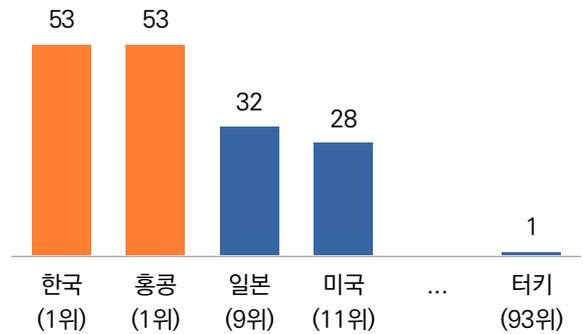
세계인의 종교 변화와 종교적 의식 한국인의 종교 변화, 세계 최상위 수준!

-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와 영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전통적으로 불교와 무속 신앙이 남아있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5개 국가의 종교성에 주목했다. 이 보고서에는 같은 기관이 조사한 세계 102개국 종교의식 조사 결과와 동아시아 5개국 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수록하였다.
- 먼저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성인의 비율은 한국이 35%로 102개 국가 중 2위를 차지했다. 또한 종교전환율, 즉 전 국민 중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를 바꾸거나, 무종교에서 종교를 갖거나, 종교를 버리거나 해서 종교에 변화를 준 사람의 경우 한국이 53%로 10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그만큼 한국은 종교 변동성이 큰 나라이다.
- 종교 이탈률과 전환율 모두 ‘홍콩’, ‘일본’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이 상위권에 위치해 다른 지역권에 비해 크게 높았다.

[그림] 종교 이탈률 (102개 국가 성인,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으나 현재 무종교인, %)



[그림] 종교 전환율 (102국가 성인, 지금까지 살면서 종교에 변화를 준 사람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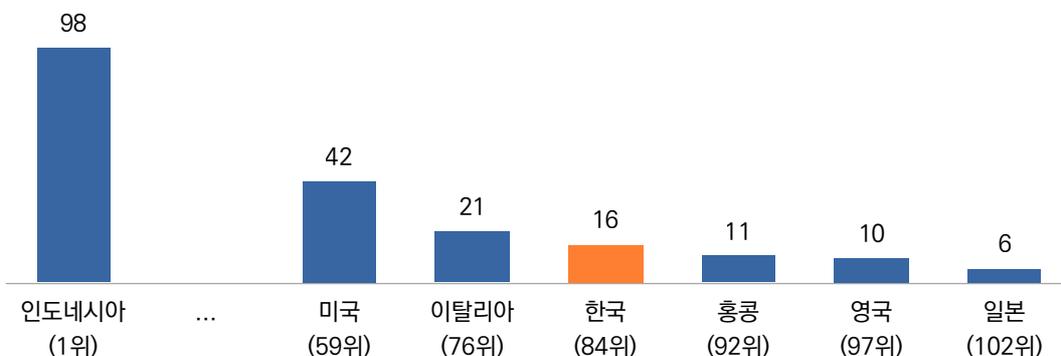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동아시아 5개국 외 국가는 2008~2023년 조사한 데이터임)

한국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중요성, 세계 하위권!

- 종교가 삶에서 차지하는 가치는 나라별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종교가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니 '한국'은 16%로 102개국 중 84위에 랭크됐다. '홍콩(11%, 92위)'과 '일본(6%, 102위)'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종교 중요성 인식은 다른 지역권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림]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응답 비율 (102개 국가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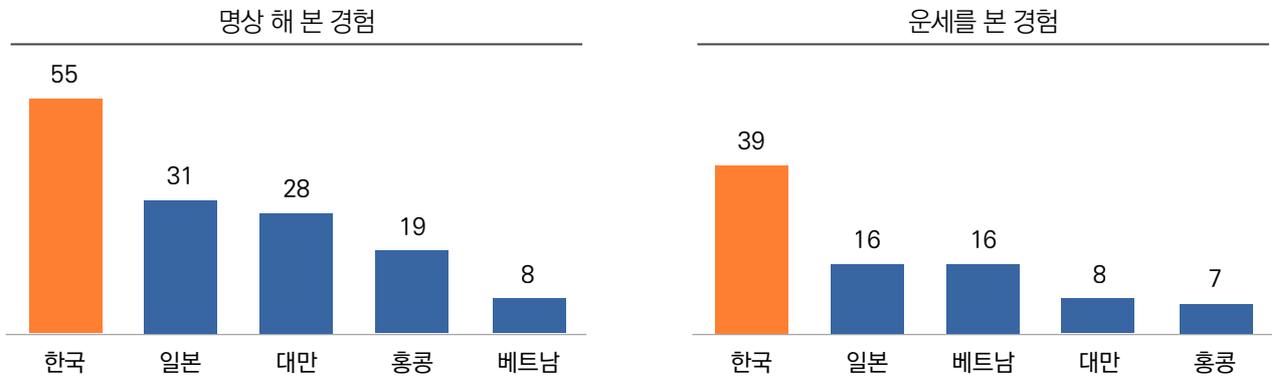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동아시아 5개국 외 국가는 2008~2023년 조사한 데이터임)

*4점 척도

무종교인의 종교적 행위와 무속 경험, 한국이 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높아!

- 동아시아 5개국의 무종교인에게 최근 1년간 명상 같은 종교적 행위나, 운세 같은 무속 행위를 해본 경험을 물었다. 그 결과 한국인의 명상 해 본 경험이 55%로 가장 높았고, 운세를 본 경험도 39%로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그림] 무종교인의 종교적 행위 경험 (동아시아 5개국 무종교인, 최근 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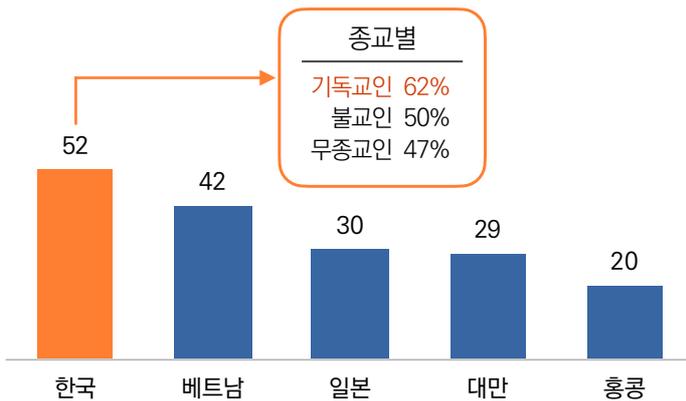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삶의 의미와 목적 추구, 한국이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높아!

- 한국인은 또한 조사 대상국 중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응답자 52%가 '최소 한 달에 한 번 이상 삶의 의미 및 목적에 대해 생각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일본(30%), '홍콩(20%)'보다 크게 높은 수치이다. 종교와는 거리가 있지만 종교성은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 기독교인의 경우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한 달에 1번 이상 생각하는 빈도가 62%로 무종교인이나 불교보다 더 높았다.

[그림]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빈도 (동아시아 5개국 성인, 한 달에 1번 이상 기준, %)



※출처 : Pew Research Center, 'Religion in east asia report', 2024.06. (한국/일본/홍콩/대만/베트남 성인 10,390명, 한국/일본/홍콩/대만: 전화 인터뷰, 베트남: 대면 인터뷰, 2023.06.~2023.09.)

이번호 요약

1. 한국인의 종교적 믿음,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

- 한국인의 '신적 존재에 대한 믿음'(33%, 26개국 중 25위), '종교적 만족도'(50%, 30개국 중 29위)가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 종교가 내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 역시 102개 국가 중 8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2. 하지만 한국인의 종교성 낮지 않아!

- 종교 비율이 높지 않은 동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홍콩, 대만, 베트남) 비교에서, 한국은 '명상', '운세' 등 종교적 행위를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또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생각하는 비율도 동아시아 5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칼럼] 무종교인의 증가와 제도 종교의 쇠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아이굿뉴스)
- ▶ [기사] 무종교는 '신종교'일까? 가속화되는 무종교의 확장과 관련하여 (베리타스)
- ▶ [넘버즈 237호]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전도서 3:11)

목회 적용점

지난 넘버즈 237호 '무종교인의 종교의식' 편에서 무종교인도 종교성이 어느 정도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에 세계조사에서도 확인된 점은 한국인이 '종교적 믿음'은 적은 반면, '종교성'은 역시 낮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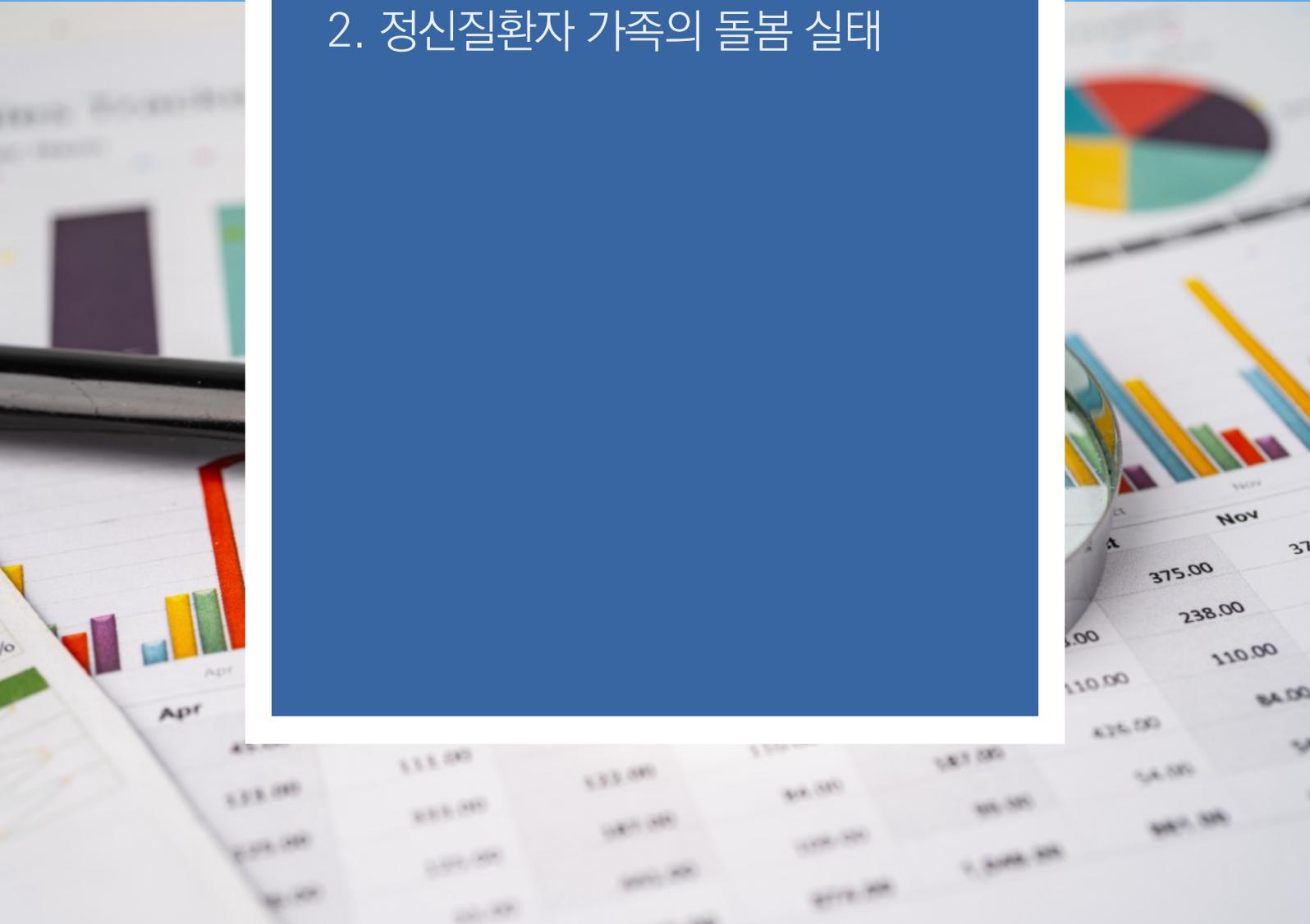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의 한 주제로 개신교인의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음'을 조명했다면, 이제는 무종교인이 더 많아진 한국인의 종교적이지 않지만 '영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자연스럽게 갖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명상', '운세', '템플스테이' 등 종교적 행위가 대중문화 영역에서 소비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교회는 무종교인도 영적인 존재임을 의미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지난 1년간 전도 행사를 하지 않은 교회가 절반(50%)이라는 조사결과가 있다*. 교회의 정기적인 전도 프로그램 실행과 관계 전도 매뉴얼의 실천은 전도의 결과를 떠나 성도가 주변 지인과 이웃의 영적 갈급함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할 일이다.

*넘버즈플 87차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세대통합예배 인식
2.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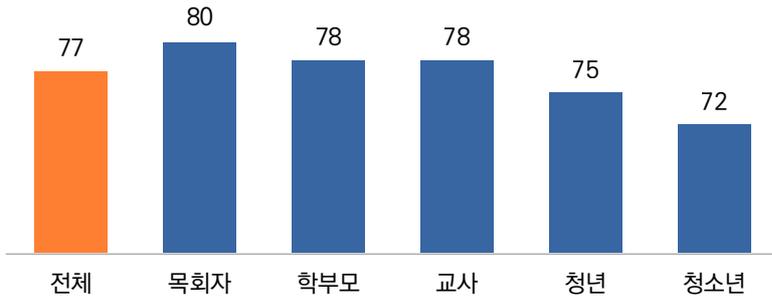




[세대통합예배 인식] 목회자 10명 중 8명, '세대통합예배 필요하다'!

- 함영주 총신대 교수가 최근 교회학교 교사, 청소년과 청년, 학부모, 목사와 전도사 대상의 세대통합예배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결과를 살펴본다.
- 세대통합예배에 대해서 응답자의 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는데, '목회자' 80%, '청소년'은 72%가 동의해 전반적으로 응답자 모두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그림] 세대통합예배 필요성 ('매우+약간 필요하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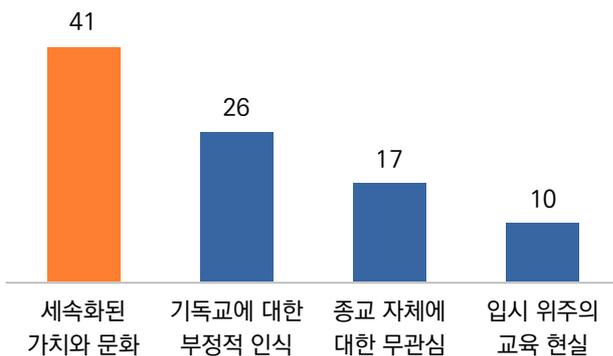
※출처 : ACTS 신학저널, '세대통합예배에 대한 교육 추체들의 인식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2024.07. (사역자·교회학교 교사·청소년·청년·학부모 458명, 2024.04.24.~05.31.)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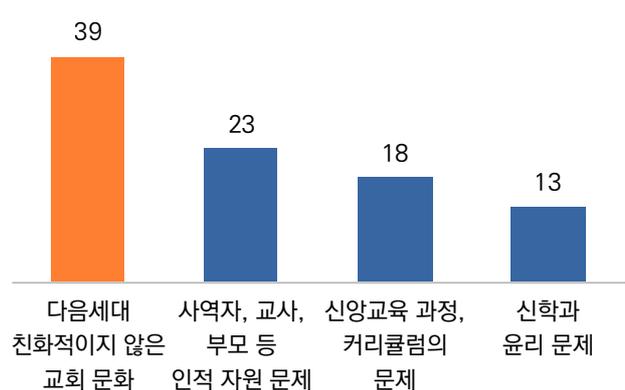
다음세대 교육의 교회 내 문제점, '다음세대에 친화적이지 않은 교회 문화'!

- 다음세대 신앙교육을 위협하는 내외부 요인을 물었다. 외부 요인으로는 '세속화된 가치와 문화'가 41%로 가장 높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26%, '종교 자체에 대한 무관심' 17% 순이었다.
- 내부 요인으로는 '다음세대 친화적이지 않은 교회 문화'가 39%로 가장 높았고, '사역자, 교사, 부모 등 인적 자원 문제' 23%, '신앙교육 과정, 커리큘럼의 문제' 18%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다음세대 신앙교육 위기의 외부 요인 (상위 4위, %)



[그림] 다음세대 신앙교육 위기의 내부 요인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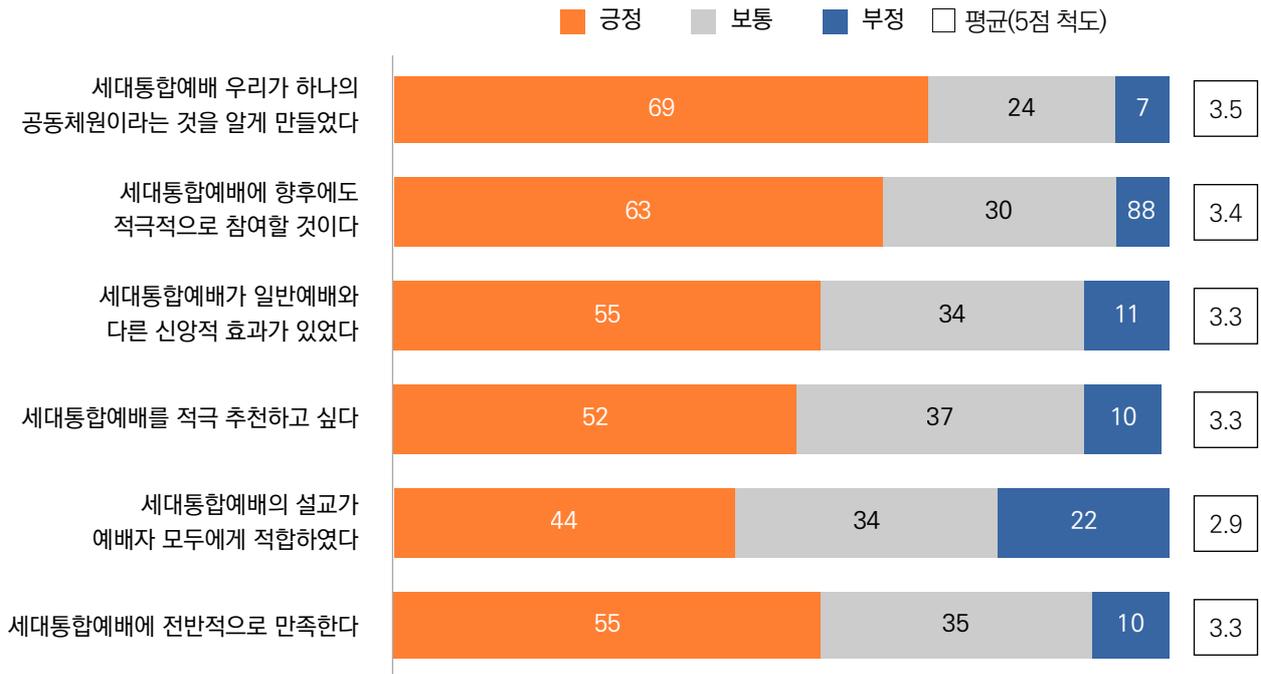
※출처 : ACTS 신학저널, '세대통합예배에 대한 교육 추체들의 인식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2024.07. (사역자·교회학교 교사·청소년·청년·학부모 458명, 2024.04.24.~05.31.)

*넘버즈 213호 참조

세대통합예배 전반적 만족도 55%로 그다지 높지 않아!

- 세대통합예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진술문을 제시하고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세대통합예배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원이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69%, '세대통합예배에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는 63%의 동의율을 보여 '세대통합 효과'와 '향후 참여 의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하지만 '세대통합예배를 적극 추천하고 싶다(52%)', '세대통합예배의 설교가 예배자 모두에게 적합하였다(44%)'에서 나타난 '추천 의향'과 '전체 적합성'은 절반 정도의 동의율을 보였다.
- 세대통합예배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3.3점으로 5점 척도인 것을 감안하면 높지 않은 편에 해당했다.

[그림] 세대통합예배 인식* (%)



※출처 : ACTS 신학저널, '세대통합예배에 대한 교육 추체들의 인식과 기독교 교육적 함의', 2024.07. (사역자 교회학교 교사·청소년·청년·학부모 458명, 2024.04.24.~0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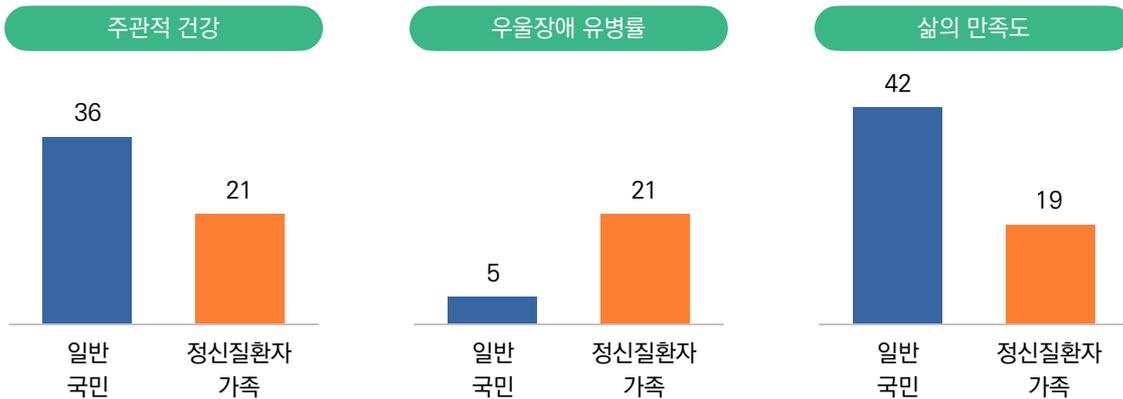
*5점 척도, 긍정 (매우+약간 그렇다), 부정 (매우+약간 그렇지 않다)



[정신질환자 가족의 돌봄 실태]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만족도, 일반 국민 절반에도 못 미쳐

- 보건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돌봄 경험을 처음으로 조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가족의 경우 환자의 돌봄 부담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 정신질환자 가족의 주관적 건강도는 21%로 '일반 국민(36%)'보다 크게 낮았고, 우울장애 유병률은 21%로 '일반 국민(5%)'의 4배에 달했다. 삶의 만족도 역시 19%로 '일반 국민(42%)'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림] 정신질환자 가족의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2024.08.22. (정신질환자 1,078명,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 우편/온라인 조사, 2023.09.~2024.04.)

Note) 주관적 건강 : '매우+약간 건강' 비율, 5점 척도

삶의 만족도 : '매우+약간 만족', 5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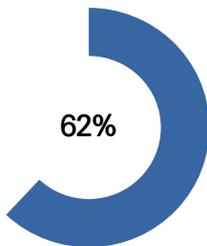
우울장애유병률 : 우울증선별도구(PHQ-9) 총점 27점 중 10점 이상인 비율

정신질환자 가족 10명 중 6명, '돌봄 부담 크다'

- 정신질환자 가족은 환자 돌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명 중 6명(62%) 정도가 환자를 돌보는 부담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56%가 주변으로부터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림] 정신질환자 돌봄 부담 (정신질환자 가족)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환자 돌봄 부담 크다



정신질환자 가족으로서 친인척,
친구, 이웃 등에게 차별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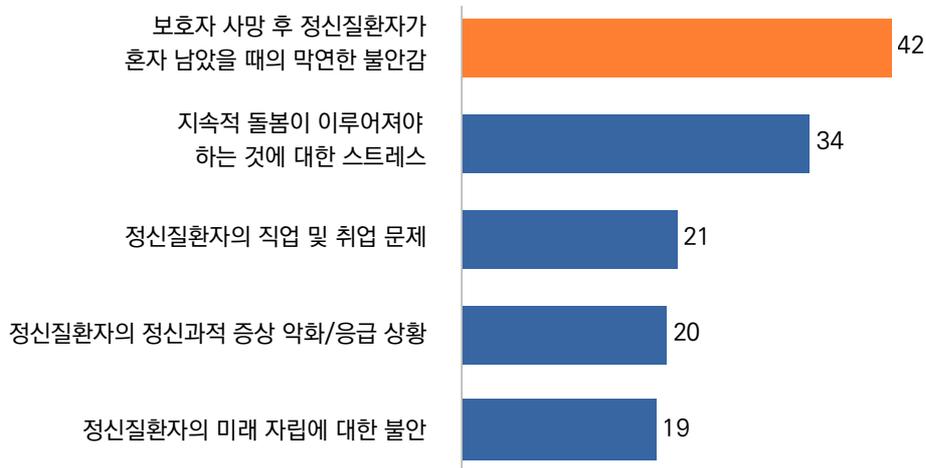


※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2024.08.22. (정신질환자 1,078명,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 우편/온라인 조사, 2023.09.~2024.04.)

정신질환자 가족의 가장 큰 걱정, ‘내가 죽으면 환자는 누가 돌보지?’

- 정신질환자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보호자 사망 후 정신질환자가 혼자 남았을 때의 막연한 불안감’이 42%로 가장 높았고, ‘지속적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34%)’가 그다음을 차지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보호자 부재에 대한 두려움과 언제까지일지 모르는 연속된 돌봄이 정신질환자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고 있었다.

[그림] 정신질환자 돌봄 시 가장 큰 어려움 (정신질환자 가족, 중복응답, 상위 5위, %)



※출처 :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 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태조사', 보도자료, 2024.08.22. (정신질환자 1,078명, 정신질환자 가족 995명, 우편/온라인 조사, 2023.09.~2024.0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94호\(2024년 8월 5주\)](#)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정당 지지도, 금융투자소득세, 후쿠시마 방류 1년

사회 일반

[20~40대 38%만 “애 낳겠다”... ‘안 낳을 것’ 44%는 “지원 늘어나면...”](#)

조선일보_2024.9.2.

[전교조 “딤페이크 신고 이틀간 2500건...학생 304명·교사 204명 피해”](#)

조선일보_2024.8.29.

[유치원·초중고생 1년새 10만명 급감](#)

조선일보_2024.8.30.

[한국 비혼 출생 4.7%... OECD는 41.9%](#)

조선일보_2024.8.29.

[응급실 실려간 자해 환자 44%가 1020](#)

조선일보_2024.8.28.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부족, 이민정책을 통한 해결이 최선인가?](#)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8.28.

[일상적 감정 표현 및 공감능력 관련 인식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8.27.

[아동학대 신고 4.8만건, 1년새 5% ↑ ...가해자 10명 중 9명 '부모'](#)

중앙일보_2024.8.30.

[우리나라 성인 절반 울분 상태...10명 중 1명은 '심각'](#)

조선일보_2024.8.27.

청년 · 청소년

[1인 가구 극단 선택 사망자 청년이 절반... 97% '경고 신호' 보냈다](#)

국민일보_2024.8.28.

[20대 5명 중 1명은 TV 전혀 안 본다](#)

조선일보_2024.8.28.

[초상권 잃은 아이들, 어른들 촬영·연출에 후순위 밀려](#)

국민일보_2024.8.31.

경제 · 기업

[왜 혼자 야근하니? 5명중 1명이 쓰는 '직장의 신' 있다](#)

중앙일보_2024.9.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쓴 돈이 번 돈보다 많아... 24%가 '적자 가구'](#)

조선일보_2024.8.30.

["퇴근 후 잠수타도 OK"... 호주, 법으로 보장](#)

매일경제_2024.8.26.

[직장인 10명 중 6명 "주4일제 도입해야"...실무자급은 70% 찬성](#)

국민일보_2024.9.1.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 51.8세... "외국인 근로자 늘었다"](#)

조선일보_2024.9.2.

[소상공인 워라밸도 양극화 "종사자수 적고 매출 낮을수록 노동강도 강해"](#)

조선일보_2024.9.2.

국제

[한국계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

퓨리서치센터_2024.8.30.

["미국인의 3분의 1만 '아메리칸드림' 믿는다"](#)

연합뉴스_2024.8.29.

건강

[배달음식·편식·아침 패스... 만성질환 부르는 '나혼산'](#)

국민일보_2024.8.27.

[기분 낼 때 늘 먹던 '떡볶이'의 배신... 우울 부른 범인이었다](#)

조선일보_2024.8.31.

기독교 · 종교

[주요교단 1년 새 성도 16만명 '뚝'... 10년째 내리막길](#)

국민일보_2024.8.29.

[1년간 교단 교인수 9만 4700명 감소](#)

한국기독교공보_2024.8.26.

[사역 회복됐지만 양극화 기로, "더 심해진다"](#)

국민일보_2024.8.29.

트렌드

[포스코이앤씨, 고품화·저출산 대응하는 미래 주거공간 제시](#)

한국경제_2024.8.28.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티엘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목회전략 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월드비전'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상 : 담임목사(사모), 부교역자, 평신도 리더
- 비용 : 무료
- 강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 / 김진양 부대표, wec국제선교회 장창수 선교사
- 일정 및 장소 : 온라인 신청서 참조
- 신청 : 신청 링크나 QR코드로 신청서 작성
- 문의 : 월드비전 교회협력팀 김래형 차장
02-2078-7051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목회전략세미나

World Vision

10 SIGNALS

10가지 신호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교회가 나아갈 로드맵과 새로운 목회전략을 세워 나가실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신청 링크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하반기 소그룹 리더십 세미나

저희 연구소와 협력기관인 '한국소그룹목회연구원'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24년 9월 7일(토) 오후 2:00~3:30
- 장소 : 서현교회(마포구 서교동) 본당 및 유튜브 중계
- 접수 : 온라인(QR or 홈페이지) 및 전화 접수
- 기한 : 2024년 9월 6일(금)까지
- 회비 : 1인 10,000원, 교회접수는 전화문의
- 문의 : 070-7578-2957

가정의힘 생애주기 리더십 컨퍼런스 2024

저희 연구소와 MOU기관인 '한국IFCJ 가정의힘'에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4년 9월 9일(월) 10시-16시
- 장 소 : 만나교회 본당
- 참가비 : 2만원 (생애주기 자료집, 식사, 간식 제공)
- 주 최 : (재)한국IFCJ 가정의 힘

참가 신청 링크

2024 하반기 소그룹리더십세미나

진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그룹사역 운영전략과 실제



온라인접수 QR

모든 세대를 향한
담대한 희망

노년, 가정, 생애주기 교육이 희망이다!

교회의 생애주기 교육에서 노년, 부모세대의 중요성과 실천사례,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 성장하는 사역 모델을 제안합니다.



강사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교회의 희망:
노년, 가정, 생애주기

단체함 교장
(독수리기독교교)
신앙 교육과 삶의
교육을 잇는 생애주기 교육

신형섭 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생애주기 교육이 희망이다!

김기현 교수
(간신대 목회상담)
노년의 제생명과
영적 회복이 희망이다!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가정의 힘 생애주기
살론조사 결과 분석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